

2017년 12월 전문건설업(SC) 경기실사지수(BSI)

I. 2017년 12월 전문건설업 경기평가 및 2018년 1월 전망

○ 12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 및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

- 12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62.7)과 유사한 62.0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의 4분기(61.6)<sup>1)</sup>와 유사한 수준임. 차월인 2018년 1월에 대한 전망치는 금월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계절적 요인이 반영되었음을 감안해야 할 것임<sup>2)</sup>.
-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월의 예상과 동일하게 하락한 61.1(69.4→61.1)로, 지방은 오히려 전월보다 소폭 늘어난 62.2(60.9→62.2)로 나타남. 차월에는 수도권과 지방 금월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표-1> 2017년 12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2018년 1월 전망

| 구분           | 종합   | 지역   |      |
|--------------|------|------|------|
|              |      | 수도권  | 지방   |
| 2017년 12월 평가 | 62.0 | 61.1 | 62.2 |
| 2018년 1월 전망  | 50.3 | 58.3 | 48.0 |



[그림-1]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전망 추이

1)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2017년 5월부터 월간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 이전의 추이는 종전까지 분기조사로 집계된 경기실사지수값을 이용함.  
 2) 그간 여러 기관들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와 SOC예산 감축 등을 이유로 추후의 건설투자 감소를 우려해 왔음. 하지만 실제로 확정된 내년의 SOC예산은 약 19조 원 규모로서 기존 정부안보다 증가했으며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기본방향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약 2조원 규모의 투자보강도 계획되어 있음. 또한 금년부터 2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추진된다면 국유지 개발 등에 따른 건설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됨.

##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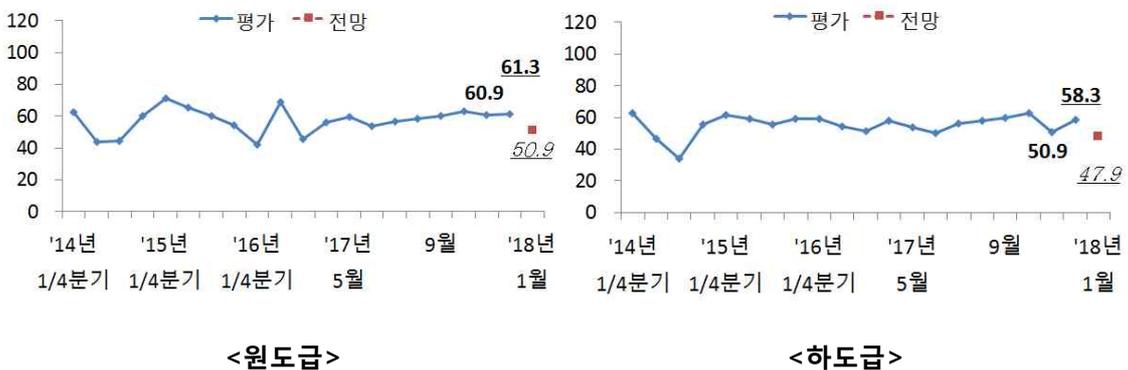
###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은 유사, 하도급은 상승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은 전월보다 수치는 개선되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61.3(60.9→61.3)으로, 하도급은 전월보다 크게 상승한 58.3(50.9→58.3)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원도급은 수도권이 소폭 하락하고 지방은 전월과 동일했으며, 하도급은 수도권은 소폭 하락하고 지방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전월에 이어 수도권(63.9→55.6)의 하락폭이 컸지만 지방(60.2→63.0)은 연이어 소폭 상승함.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52.8→58.3)과 지방(50.4→58.3)에서 모두 전월보다 크게 상승한 결과를 나타냄.

<표-2> 2017년 12월 전문건설업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비교)

| 구분  | 종합          | 지역   |      |      |
|-----|-------------|------|------|------|
|     |             | 수도권  | 지방   |      |
| 원도급 | '17년 12월 평가 | 61.3 | 55.6 | 63.0 |
|     | '18년 1월 전망  | 50.9 | 52.8 | 50.4 |
| 하도급 | '17년 12월 평가 | 58.3 | 58.3 | 58.3 |
|     | '18년 1월 전망  | 47.9 | 50.0 | 47.2 |



[그림-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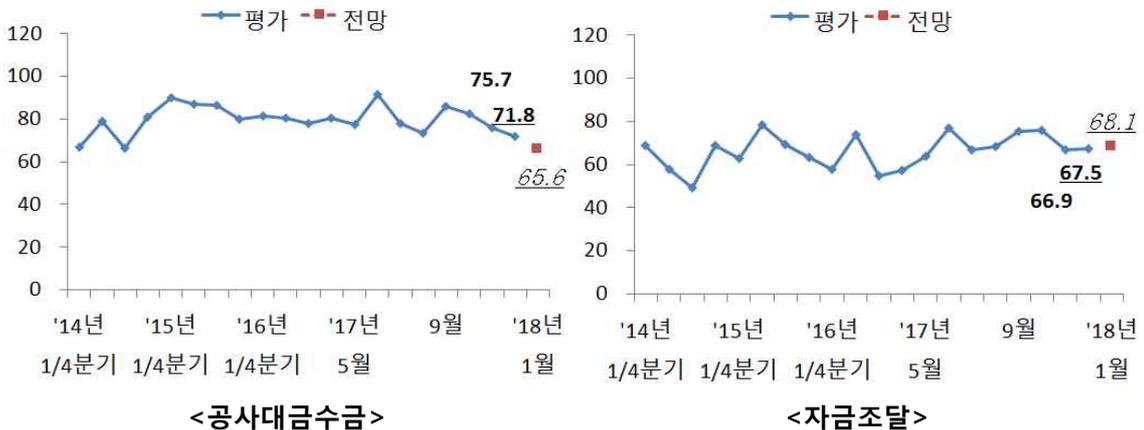
##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하락세, 자금조달지수는 전월과 유사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전월보다 71.8(75.7→71.8)로 지난 10월부터의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인 67.5(66.9→67.5)로 나타남. 전자는 여전히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 반면, 후자는 그와 반대로 전년 동기보다 크게 개선된 수준임.
- 공사대금수금지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91.7→83.3)은 지난 10월(105.4)부터의 하락세를 유지했으며, 지방(71.4→68.5)은 전월에 비해 조금 낮아진 상황임.
- 자금조달지수는 수도권(77.8→86.1)에서 큰 폭의 개선을 보였지만 지방(63.9→62.2)에서는 전월보다 소폭 하락함.

<표-3> 2017년 12월 전문건설업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비교)

| 구분     | 종합          | 지 역  |      |
|--------|-------------|------|------|
|        |             | 수도권  | 지방   |
| 공사대금수금 | '17년 12월 평가 | 71.8 | 65.6 |
|        | '18년 1월 전망  | 65.6 | 63.8 |
| 자금조달   | '17년 12월 평가 | 67.5 | 66.9 |
|        | '18년 1월 전망  | 68.1 | 63.8 |



[그림-3] 전문건설업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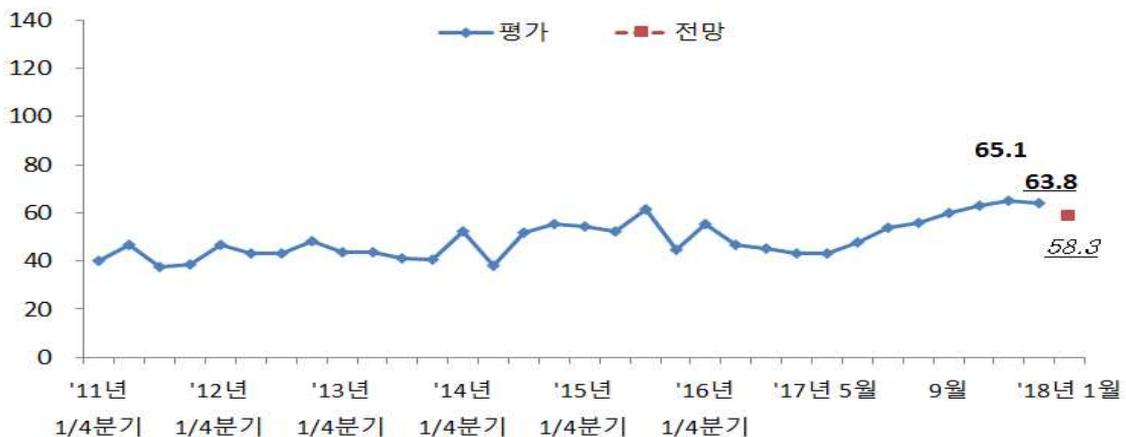
### 3. 인건비지수

○ 인건비지수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

- 인건비 경기실사지수는 지난 11월보다 조금 낮지만 비교적 유사한 수준인 63.8(65.1→63.8)로 나타남. 이번 조사에서도 건설기능인력의 인건비 문제가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현재의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sup>3)</sup>.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52.8→61.1)은 소폭 하락한 반면 지방(68.4→64.6)은 소폭 상승함. 이는 아파트 입주물량의 증가 등 지역에 따른 인력수요의 편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표-4> 2017년 12월 전문건설업 인건비지수 (비교)

| 구분  | 종합          | 지 역  |      |
|-----|-------------|------|------|
|     |             | 수도권  | 지방   |
| 인건비 | '17년 12월 평가 | 63.8 | 64.6 |
|     | '18년 1월 전망  | 58.3 | 55.9 |



[그림-4] 전문건설업 인건비지수 추이

3) 건설현장에서의 기능인력 수급문제와 함께 인건비 자체가 종전보다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하지만 기능인력들의 입장에서는 현장업무가 육체적인 부분을 많이 요구받는다라는 점과 이들의 근로일수 등을 현재의 인건비 수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 4. 자재수급지수<sup>4)</sup>

○ 자재수급지수는 전월보다 개선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전월보다 개선된 99.4(94.7→99.4)로 나타남. 하지만 이러한 현황은 자재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며<sup>5)</sup>,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수급문제보다는 가격면의 문제점이 보다 부각되는 상황임<sup>6)</sup>.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105.6→94.4)은 전월보다 하락한 반면, 지방(91.7→100.8)에서는 오히려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5> 2017년 12월 전문건설업 자재수급지수 (비교)

| 구분   | 종합          | 지역    |       |
|------|-------------|-------|-------|
|      |             | 수도권   | 지방    |
| 자재수급 | '17년 12월 평가 | 94.4  | 100.8 |
|      | '18년 1월 전망  | 111.1 | 105.5 |



[그림-5] 전문건설업 자재수급지수 추이

4)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게 나타남.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극히 드물기 때문임.

5) 주택공사의 마감공정에서 사용량이 많은 드라이모르타르의 경우에는 일부 현장에서 원활한 수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반면, 그간 공급이 늘어난 콘크리트 파일의 경우에는 공급과다로 인한 가격하락이 문제가 되는 상황임.

6) 대표적인 건설자재인 철근의 가격은 금년 1분기에 톤당 70만 원대를 넘었으며, 지난 2017년 내내 문제시되던 골재수급 문제도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레미콘 등 관련 자재의 가격부담을 토로하는 건설업체들이 적지 않은 상황임..

### 5. 건설장비수급지수<sup>7)</sup>

○ 장비수급지수는 전월과 유사

- 장비수급지수는 지난 조사와 유사한 수준인 106.1(107.1→106.1)로 나타났으며 차월에는 금월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동계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건설장비의 수급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참고로 작년 하반기의 경우 굴삭기 등 주요 건설기계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건설업체들의 장비수급보다는 건설수주 같은 건설시장과 연관시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임.
- 지역별로도 수도권(108.3→105.6)은 소폭 하락했지만 그 정도가 건설장비의 수급문제와 연결시킬 규모는 아니며, 지방(106.8→106.3)에서도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

<표-4> 2017년 12월 전문건설업 건설장비수급지수 (비교)

| 구분   | 종합          | 지역    |       |       |
|------|-------------|-------|-------|-------|
|      |             | 수도권   | 지방    |       |
| 장비수급 | '17년 12월 평가 | 106.1 | 105.6 | 106.3 |
|      | '18년 1월 전망  | 113.5 | 111.1 | 114.2 |

7) 건설장비수급지수는 2017년 5월부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조사에 신규로 추가된 항목임.

※ 참고: 2017년 12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 구분       |         | 전체    | 지역           |       |       |
|----------|---------|-------|--------------|-------|-------|
|          |         |       | 수도권          | 지방    |       |
| 전문건설업 경기 |         | 금월 평가 | <b>62.0</b>  | 61.1  | 62.2  |
|          |         | 차월 전망 | <b>50.3</b>  | 58.3  | 48.0  |
| 공사물량     | 원도급     | 금월 평가 | <b>61.3</b>  | 55.6  | 63.0  |
|          |         | 차월 전망 | <b>50.9</b>  | 52.8  | 50.4  |
|          | 하도급     | 금월 평가 | <b>58.3</b>  | 58.3  | 58.3  |
|          |         | 차월 전망 | <b>47.9</b>  | 50.0  | 47.2  |
| 자금사정     | 공사대금 수금 | 금월 평가 | <b>71.8</b>  | 83.3  | 68.5  |
|          |         | 차월 전망 | <b>65.6</b>  | 72.2  | 63.8  |
|          | 자금조달    | 금월 평가 | <b>67.5</b>  | 86.1  | 62.2  |
|          |         | 차월 전망 | <b>68.1</b>  | 83.3  | 63.8  |
| 인건비      |         | 금월 평가 | <b>63.8</b>  | 61.1  | 64.6  |
|          |         | 차월 전망 | <b>58.3</b>  | 66.7  | 55.9  |
| 건설자재 수급  |         | 금월 평가 | <b>99.4</b>  | 94.4  | 100.8 |
|          |         | 차월 전망 | <b>106.7</b> | 111.1 | 105.5 |
| 건설장비 수급  |         | 금월 평가 | <b>106.1</b> | 105.6 | 106.3 |
|          |         | 차월 전망 | <b>113.5</b> | 111.1 | 114.2 |

문의: 이은형 (책임연구원, eunhyung@ricon.re.kr)